# 해남 두륜산에 생태 힐링파크 조성

## 50억 들여 삼산면 1만5299㎡ 규모
## 카트레이싱·사계절썰매장 등
## 가족단위 체험·힐링 공간 마련

해남 두륜산에 생태 힐링파크가 만들어 진다.

해남군은 두륜산권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케이블카 맞은편에 1만5299㎡ 규모로, 두륜산의 지리환경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체험놀이시설과 힐링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두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스릴도 즐길 수 있는 카트레이싱(길이 356m)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신나는 썰매와 봄·여름·가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계절썰매장(길이 75m), 빛의 터널, 힐링 수국정원,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군은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상반기 실시설계를 비롯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대흥사와 두륜산 케이블카, 두륜 미로파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두륜산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천년고찰 대흥사를 품고 있는 곳으로 자연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이다"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전국 최고 품질 위상지킨다…해남 밤고구마 심기 한창

고구마 주산지인 해남군 화산면에서 고구마 순 심기(정식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달 중순부터 정식을 시작한 조기출하용 해남 밤고구마는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이면 맛있는 햇고구마로 만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 영광군, 관광정보 자동안내 챗봇 서비스

## 365일 24시간 관광안내 가능

영광군이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안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관광정보 자동안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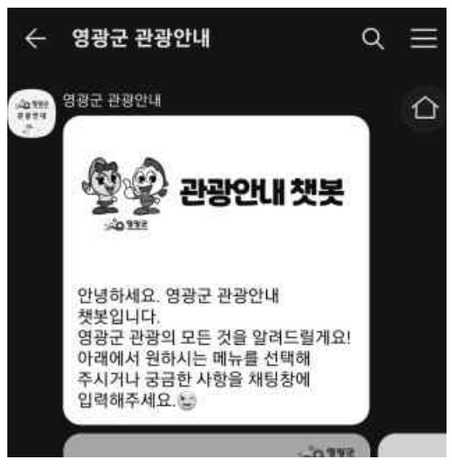
챗봇(ChatBot)은 온라인 대화를 뜻하는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과 시나리오 기반의 자동 대화 메신저를 뜻한다. 최근 비대면 홍보 방법이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군은 2월부터 사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관광분야 챗봇 개발에 매진해 왔다.

챗봇은 카카오톡에서 '영광군 관광안내'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 하거나 영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tour.yeonggwang.go.kr/)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채팅창을 선택하면 주요 관광지, 축제·행사, 음식·특산품, 숙박, 교통 등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스마트 관광지도, 스탬프투어, 문화해설사 신청, 관광가이드북 신청 등 관광과 관련한 각종 부가서비스도 연계·사용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관광지 정보 등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매달 관광객 이용패턴 분석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관광 수요 파악과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상시 관광안내를 가능한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영광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편리함의 증대가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제주를 1시간 30분에 주파하는 고속카페리 '산타모니카호'.

# '최단 시간 90분' 진도-제주 고속카페리 첫 취항

## '산타모니카호' 진도항서
## 승객 488명 싣고 제주 출항

국내 육지에서 제주를 최단 시간(90분)에 주파하는 고속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했다.

씨월드고속훼리 소속 산타모니카호는 지난 7일 오전 8시 진도항에서 승객 488명과 차량 42대를 싣고 제주항으로 첫 출항 했다.

호주 인캣사(INCAT)에서 건조한 산타모니카호는 길이 75.7m, 너비 20.6m, 높이 21m, 국제톤수 3500t급 선박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여객 606명과 86대의 승용차를 동시에 실을 수 있고, 최고 속도는 42노트(시속 78km)이다.

운항 시간은 직항 시 제주를 입항하는 국내 여객선 중 가장 빠른 90분 정도 소요된다. 추자도를 들를 경우 120분이 걸린다.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총 2회 운항한다.

오전 진도-제주발, 오후 제주-진도발 노선이 추자도를 경유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군, 혁신적 협업 '역발상 캠페인' 전개

## 공직내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완도군이 공직사회 협업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캠페인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공직 내 소통으로 상호 존중하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역·발·상 캠페인'을 전개한다.

'역·발·상'은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고 '발상 전환' 고정 관념과 사고의 틀을 깨고 '상호 존중' 서로 동등하게 존중·배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지사지, '발'상 전환, '상'호 존중의 줄임말이다.

역·발·상 캠페인은 MZ세대(밀레니엄+Z세대)의 부상으로 공직 내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부서 및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1일까지 부서장과 직원들이 실천 내용 및 사진 등을 부서장 SNS에 게재하고 다음 부서장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천 내용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군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다지는 회의체인 '주니어보드' 조장들과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무안군, 보행자 편의 도로명판 확충

## 이면도로 등에 225개 신규 설치

무안군이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확충에 나섰다.

무안군은 최근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25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로명판은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까지 확대 설치됐으며, 주민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무안 지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3만1352개소이며, 군은 주소정보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일제조사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와 군비 예산을 투입해 원동 바닷길, 월평길 등 도로 구간에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호석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군민들과 무안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